

# ‘광주시-中 광저우시 23년 우정’ 주목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중 우호 스토리텔링 교류회에 참석해 푸화 중국 광동성 선전부장과 2019세계수영대회 미스코트인 수리·달이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 수교 27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한·중 우호 스토리텔링 교류회’에서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주목을 받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중국 광동성이 주최하고 광주의 자체결연 도시인 광저우시가 주관해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중 우호 스토리텔링 교류회’에 대한민국 대표

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행사에서 “광저우시와 광주시는 23년 간 우정을 쌓아온 ‘라오류유(오래되고 친밀한 관계)’로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교류협력을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시장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메르스라는 악재가 터졌을 당시 모두가 광주 방문을 꺼려하고 있을 때 광저우시

## 서울서 한·중 우호 스토리텔링 교류회 소개

### 23년 간 우호교류 통해 어려울 때 도움 줘

시장과 대표단이 일부러 광주를 찾았던 것을 전 세계에 직접 보여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다”고 친분을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광주를 방문해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미스터즈 대회에 광저우시 시장께서 직접 선수로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또 한 번 광주를 감동시켰다”면서 “그 마음이 대회 성공의 기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광저우와 광주는 이를도 닮았지만 역사·문화 등 많은 부분의 공통점을 갖고 교류해 왔다”며 “앞으로 양 도시가 더욱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7월12일 광주에서 5대 메가 스포츠 중의 하나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한다”며 “8월5일부터 열리는 미스터즈대회에 광

동성과 광저우에서 많은 수영동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교류회를 주최한 광동성 푸화 선전부장은 “스토리는 나눌수록 더욱 풍부해지고 한·중 간 활발한 교류는 더욱 다양한 이지아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광저우시 간의 감동적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한·중 양국의 많은 교류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광주와 광저우시의 교류는 한·중 우호교류의 모범사례다”며 “오는 7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꼭 참가해서 한·중 간 문화·체육·예술 교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환영했다.

이 시장은 “광저우TV와 신문 등 언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광주세계수영대회를 홍보했다.

서은홍 기자

# 이개호 농림부장관 “청년이 농업 농촌 희망”

## ‘4차 산업혁명’ 주제로 호남대 특강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청년이 농업과 농촌의 희망이라는 점과 도전의식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호남대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소개한 뒤 “이제 농업·농촌은 새로운 삶터, 일터, 원터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만큼 취업과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틈새시장을 찾는 과감한 도전의식을 갖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농업과 유전자농업, 3D 프린터 식품생산 등의 농업생산 발전과 함께 1인가구 증가로 ‘혼밥시대’, 가정간편식(HMR)이 대세가 되면서 식품소비에도 변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

며 “이같은 변화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농업 생산기술의 발전과 식품소비의 변화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미래를 고민하는 청춘들이 농업 농촌에서 희망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열정과 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실도 급속한 변화 추세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변화를 주도해야 할 청년농업인은 덕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예비농업인 육성과 영농 첨성화 과정 운영 등으로 청년들을 농업 농촌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청업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봄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라며 “신도농가 실습과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업으로서의 농업, 삶으로서의 정주여건도 중요하다’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과 함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SOC 기능이 복합된 거점시설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 목포·장성·해남

湖  
南  
新聞  
이  
 지역 공급  
 미래창조  
 정론주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동구, 기본 복지기아드리인 상반기 전수조사

광주 동구가 ‘기본 복지기아드리인 2019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저소득계층의 복지기본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하반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민선7기 출범이후 민·관 사회복지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분야별 담당공무원 견의 등을 종합리해 지난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체 기본 복지 기아드리인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생활기준 ▲혹서기·혹한기 대비기준 ▲돌봄 대상기준 ▲교육 및 문화기준 등 4대 분야 79개 세부기준을 제시해 일상생활 주요영역에서 지역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구,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효과

광주 서구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RFID 무선인식기기 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RFDI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RFID가 부착된 배출카드를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에 접촉하면 배출원(동·호수)과 무게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버린 양만큼 수료표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서구는 2018년도부터 세대별 종량제 구축을 시작해 공동주택 109개 단지에 RFID 장비 911대를 구축했으며, 설치 전과 비교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 이상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남구, 경로당 등 2곳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광주 남구는 심정지(心停止)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남구는 10일 “자동심장 충격기 신규 보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4일 까지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며, 의무설치 대상기관 32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점검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수요조사를 통해 20곳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에는 건강 적신호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보급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관내 병원과 학교, 119센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114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 130대 가운데 의무설치 비대상 기관에 설치된 98대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점검토록 하고 법정 의무설치 대상기관인 32개소 37대에 대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 북구,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추진

광주 북구가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0월까지 소상공인 창업절차, 업종전환, 최신 트렌드 분석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및 창업박람회 전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스쿨 기본교육 ▲외식업 및 패션▲업종전환 특화교육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 광산구, 안전보안관 교육 실시

7일 광주 광산구가 어룡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하고 행안부 지정 고질적 안전무시 행위,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 방법,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법 등을 알렸다.

광산구 관계자는 “안전보안관은 작년 5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도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적극 뜻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 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